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이 인 숙 · 전 미 양 · 김 영 희 · 정 미 숙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중매체의 노골화된 성적 표현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향락산업의 번성은 성에 대한 윤리관을 변화시켜 인신매매 및 성범죄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권이중, 1992; 오윤정 등, 1998; 정동철, 1989).

젊은 계층은 보다 쉽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기회의 확대 이면에는 '성의 해방시대', '성 혁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풍토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성적 행동, 성행태를 낳게 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인공유산 피시술자 가운데 미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이홍균, 유태환, 1996), 전체 유산의 1/3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홍, 1996). 20세 이하의 인공유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하였고(박숙자, 1996) 특히 미혼여성의 26.7%가 20세 이하였으며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 24.9%에서 1996년 49.7%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최의선, 1998).

1996년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1995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에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1991년도에 그 점유율이 1.3%였으나 1995년도에는 2.6%로 2배로 높아졌다. 이중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으며 성폭력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최영애, 1994).

Lester와 Cox(1998)는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적절한 환경 및 여건 조성이야말로 그들의 성적 욕구 불만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성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참모습을 학습시키고, 성정보의 범람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에 대하여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에 있다(김소아자, 1986; 문인옥, 1997).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우 보다는 친구나 잡지 그리고 비디오 등의 정확하지 않은 구전적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현숙 등, 1997; 김소아자, 1986; 문인옥, 1997; 손경희, 1993; 윤귀임, 1982; 이명화, 1982; 이인숙, 1994; 최희정, 1985; Patricia et al., 1992).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에의 무방비적 노출은 자아정체성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교육은 각 발달단계에 따라 그들의 요구와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의 내용과 학습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달단계상 성충동이 높고 성적 관심과 갈등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 왔기 때문에(김언희, 정문숙, 1993; 김용자, 1993; 이명화, 1993; 이지연, 1994; 정아영, 1991; 한경희, 1991) 성인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이란 대학에 따라 특강이나 교양과목의 형태로 이루어질 뿐 정규교과목을 통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인숙, 1994).

이에 본 연구는 개방화된 성문화 속에서 심각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성교육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성지식을 파악한다
- 2) 대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3)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지식

성의 생물학적,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생식생리, 성병, 피임, 성생리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29개 문항의 성지식 도구로 측정된 문항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성교육 요구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여부, 성교육 참여여부, 성교육의 방법, 시작시기 및 성교육 담당자에 관한 6개 문항과 성교육에 포함될 내용인 남녀의 성심리, 성윤리, 생식생리, 성생리, 성병, 피임, 성행동, 남녀의 역할,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이성교제의 방법, 배우자 선택, 동성연애 등 20개 문항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성지식

현대사회는 각종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에 관한 정보도 범람하고 있다(권이중, 1992).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성지식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욱 성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속에 놓이게 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오윤정 등, 1998; 이영휘 등, 1997).

미국 청소년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의 성 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였다(손호은, 1991).

또한 성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도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며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윤가현, 1992).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정숙(1981)의 연구에 의하면 성에 관해 가장 모르는 내용은 피임방법(90.7%)이었고, 그 다음이 성병(87.2%),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84.0%) 그리고 몽정(81.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영자(1984)의 연구에서는 성애, 자위, 동성애, 인공수정, 성적자극에 대한 성지식이 있어 학년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한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몽정에 대해, 남학생은 출산에 대한 성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생을 대상으로 했던 박애신(1992)의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성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박인혜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녀 생식기능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임신생리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성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지식이 많았으며 특히 생생리와 성병에 관한 지식은 남학생이, 생식생리에 관한 지식은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성지식이 많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휘 등(1997)의 연구에서는 영역별 성지식 가운데 성병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임신, 생리기능, 피임, 생식기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숙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성지식 20개 문항 가운데 남학생은 15개 문항에서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여학생은 14개 문항에서 5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박충선과 한유정(1997)에 연구에서도 30점 만점 중 남학생은 22.3점이고 여학생은 21.0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성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성지식이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지식이 많았던 반면 이성에 관련된 성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단순히 생식과 관련된 해부학적 지식보다는 이성의 기본적인 생생리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지식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도 시기와 연령에 적합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성지식 습득에서 초래되는 성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성교육

우리사회는 성을 금기시 여겨서 성에 관하여 논하는 것을 상스럽고 교양없는 일로 생각하여 왔다(오윤정 등, 1998).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사회가 알고 있는 성은 성교를 유일한 목표로 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가린 채 성교를 정점으로 주변 지식들만을 늘어 놓는 모순속에 갇혀 왔다(이지연, 1994).

학교 성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나 임신, 출산 및 청소년기 남성들의 가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계획을 각 교육청에 시달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정규교과 시간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한겨레, 1996).

성교육은 일차적으로 가정교육 기능의 범주속에 들어가는데 이는 가정이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자녀를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역할을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성인으로서 준비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다(김한경, 1983). 그러나 우리문화에서 성이란 드러난 상태보다는 은성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폐쇄적인 방법으로 성에 대하여 배우는 상황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최순희, 1980).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자나 상담자가 되어야 할 성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성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아 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쉽고 정확한 성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매우 어렵게 주어진 성교육 시간을 지겹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양해경, 1996). 즉, 학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피상적이고 모호하여 학생들

에게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성주, 1996).

성교육이란 성의 생리적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의식과 성도덕의 윤리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교육이며(교육부, 1983)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학습과정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성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남성과 여성 제각기의 성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권이중, 1992).

성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연구한 Sonenstein 과 Pittman(198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교육은 이성적 의사결정의 증진, 생식에 관한 지식의 증대, 원하지 않은 10대 임신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Klanger 등(1994)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자(1994)의 연구에서는 성교육이 성지식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Briggs(1995)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성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임승권(1972)은 건강한 성생활은 성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성지식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부터는 정규과정으로서 예정된 교재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ims 등(1976)은 성에 대한 태도는 정확한 정보에 기인하므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희정(1985)은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경험이 낮았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성지식을 주어 바람직한 성적 적응을 하게 하며 건전하고 원만한 인격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성교육이 초래하는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성교육 자료의 부족 및 체계적으로 계획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교육이 관련된 교과시간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

보다도 성교육 담당교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홍길유, 1989; 이병암, 1990).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으로서 김명옥(1984)의 연구에서는 도덕 및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양미선의 연구(1985)에서는 이성의 심리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 성숙문제, 월경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야자(1986)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신체적·심리적 차이, 행복한 가정과 남녀의 역할, 이성교제 방법, 성범죄와 그의 예방, 생리적 위생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귀희(1986)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교제에 관하여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Robert & Kathryn(199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임신과 피임을, 남학생은 성기의 해부, 생리 및 성병에 관하여 가장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연희(1992)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이 임신과 출산, 인체구조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Ian과 John(1992)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 대상자의 1/3에 불과하였고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 대다수가 5시간 미만의 성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이인숙(1994)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대상자 중 87%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84.0%, 여학생이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남녀학생 모두가 '남녀의 성심리'를 96.4%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으로 피임, 성병, 성윤리, 임신에 관해서였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희 등(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였으며,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식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생리기능, 피임, 임신, 성병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성교육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남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거 생식기 중심의 해부학적 지식 교육에서 탈피해 좀더 실제 생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교육을 계획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결혼 적령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대학에서의 정기적인 성교육을 통해 현재의 건전하고 원만한 이성교제에는 물론 미래의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충북에 위치한 일 개 전문대학의 5개 학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76(92%)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한 271부(90%)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인숙(1994)이 개발한 기존도구에 성지식 4개 문항, 성교육 요구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성지식 29개 문항, 성교육 요구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지식 측정도구는 2점 척도로 생식생리에 관한 13개 문항, 성생리에 대한 7개 문항, 성병에 관한 7개 문항, 피임에 관한 2개 문항 등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옳은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여 1점으로, '아니다'와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여 0점으로 측정하였다. 옳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는 역환산 하였다. 따라서 성지식 점수는 0점에서 29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한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0.7397이었다. 성교육 요구 측정 도구는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여부, 참여의사 여부, 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기 및 방법, 성교육 담당자,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 등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1)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각 학과의 담당 교수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 실시 일자를 결정하였다.

2) 연구자가 선정한 각 학과별로 강의 시작전이나 후에 학생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3) 10개 학과에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7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92%였으며 그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한 271부(90%)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지식, 성교육 요구는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일 개 전문대학의 1, 2학년 대학생 271명으로서 남학생이 25.8%(70명), 여학생이 74.2%(201명)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57%(155명)였으며 전공별로는 보건계열이 52.8%(143명), 비보건계열이 47.2%(128명)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30.6%(83명)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교교 소재지로는 중·소도시가 41.7%(113명)로 가장 많았다.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가 91.9%(249명)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64.2%(174명)와 70.5%(191명)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9.3%(242명)였으며 주거형태는 자택이 79.0%(214명)로 가장 많았다(표 1참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
성별	남	70(25.8)
	녀	201(74.2)
학년	1학년	155(57.2)
	2학년	271(42.8)
계열	보건계열	143(52.8)
	비보건계열	128(47.2)
종교	기독교	83(30.6)
	천주교	43(15.9)
	불교	44(16.2)
	종교없음	101(37.3)
출신고교 소재지	대도시	105(38.8)
	중소도시	113(41.7)
	농어촌	53(19.5)
부모 생존여부	양친생존	249(91.9)
	어머니만 생존	20(7.4)
	두분 모두 안계심	2(0.7)
아버지 학력	무학	6(2.2)
	초등학교	23(8.5)
	중학교	174(64.2)
	고등학교	57(21.0)
	대학교 이상	11(4.1)
어머니 학력	무학	6(2.2)
	초등학교	52(19.2)
	중학교	191(70.5)
	고등학교	21(7.7)
	대학교 이상	1(0.4)
경제상태	상	10(3.7)
	중	242(89.3)
	하	19(7.0)
주거형태	자택	214(79.0)
	자취 하숙	46(17.0)
	친척집	11(4.0)

2. 대상자들의 성지식

대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7.47점이었고 평균은 15.42점이었다. 성지식 가운데 '성생리'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식생리', '성병', '피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볼 때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로서 대상자의 89.3%가 '예'라고 응답하여 정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로서 대상자 중 84.5%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정답을 하였다. 70%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자위', '위생', '몽정', '폐경', '임신'에 등에 관한 문항이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월경 기간 중에 성교를 하면 임신이 된다'로서 대상자의 14.8%만이 정답을 하였고 그 다음이 '매독균은 인체 밖에서도 생존 가능하다'로서 18.1%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정답을 하였다. 정답률이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조루증', '임질'의 증상, '성병의 전염', '복강경수술', '수정', '생식생리' 등에 관해서 였다(표 2 참조).

〈표 2〉 대상자의 영역별 성지식 평점

	변수	문항수	평균(100점 환산)
성지식	성 생리	5	3.11(62.2)
	성 병	7	3.34(47.7)
	피 임	2	0.85(42.5)
	생식 생리	15	9.00(60.0)
	전 체	29	15.42(53.02)

3. 대상자의 성교육 요구

1)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여부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학생 중 79%(214명)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8.6%(55명), 여학생이 79.1%(159명)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77.6%(90명), 2학년의 80.0%(124명)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참조).

2) 성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여부

74.9%(203명)가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71.4%(50명), 여학생이 76.1%(153명)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5%(87명), 2학년이 74.8%(116명)가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3참조).

3) 원하는 성교육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실시 방법으로는 55.7%(151명)가 특강, 29.2%(79명)가 정규 교과목, 17.3%(47명)가 상담실 혹은 학교건강관리실에서의 상담, 15.5%(42명)가 인터넷을 이용한 성교육을 원하였다. 남녀가 함께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89.7%(243명)였으며 남학생 중 남녀혼합 방식을 원하는 학생은 84.3%(59명)였고 여학생은 91.5%(184명)가 남녀혼합 방식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86.2%(100명), 2학년의 92.3%(143명)가 남녀 혼합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4) 원하는 성교육 시작 시기

성교육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42.1%(114명)가 유치원, 36.2%(98명)가 초등학교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31.4%(22명)가 초등학교때부터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여학생의 47.3%(95명)는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년별로는 1, 2학년 모두 유치원 시기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3참조).

<표 3> 대상자의 성교육 요구

영역	구분	실수(%)
성교육의 필요여부	유	214(79.0)
	무	57(21.0)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참여하겠다	203(74.9)
	참여하지 않겠다	68(25.1)
성교육의 방법	정규교과목	79(29.2)
	특강	151(55.7)
	상담실이나 학교보건소	47(17.3)
	에서의 상담	
	인터넷 교육	42(15.5)
	유인물 교육	22(8.1)
기타	4(1.5)	
성교육 시작 시기	유치원때부터	114(42.1)
	초등학교	98(36.2)
	고등학교	45(16.6)
	대학교	3(1.1)
	기타	8(2.9)
성교육 실시 방식	남녀혼합	243(89.7)
	남녀분리	28(10.3)
성교육 담당자	성교육 전문가	235(86.7)
	의사	28(10.3)
	간호과 교수	39(14.4)
	부모님	41(15.1)
	선배	10(3.7)
	형제자매	9(3.3)
	기타	3(1.1)

5) 원하는 성교육 담당자

대상자의 86.7%(235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고자 하였으며 15.1%(41명)는 부모님, 14.4%(39명)는 간호과 교수, 10.3%(28명)는 의사로부터 성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77.1%(54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기 원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90%(181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81.9%(95명)가, 2학년의 90.3%(140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기 원하였다(표 3참조).

6) 원하는 성교육 내용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남녀 모두 '남녀의 성심리'를 93%로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피임', '임신', '성욕의 처리방법', '성병'에 관해서였고 가장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동성연애', '배우자 선택', '몽정'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은 '남녀의 성심리', '성욕의 처리방법', '성병', '임신', '피임'의 순으로, 여학생은 '남녀의 성심리', '피임', '임신', '성욕의 처리방법', '성병'의 순으로 성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학년별로는 1, 2학년 모두 '남녀의 성심리'를 가장 원하였고 다음으로 '피임', '임신'에 관한 성교육을 원하였다. 이외에 1학년은 '성병', '성욕의 처리방법'을 2학년은 '성욕의 처리방법', '성병'의 순으로 성교육을 받기 원하였다. 가장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1, 2학년 모두 '동성연애', '배우자 선택', '몽정', '사정' 등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표 4>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

구분	인수(%)
남녀의 성심리	252(93%)
피임	241(89%)
임신	233(86%)
성욕의 처리방법	224(83%)
성병	222(82%)
성윤리	214(79%)
성범죄의 예방	211(78%)
성교	208(77%)
분만	198(73%)
사랑의 의미	190(70%)
자위행위	190(70%)
남녀의 역할	190(70%)
남녀 생식기관	190(70%)

〈표 4〉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 분포(계속)

구분	인수(%)
월경	187(69%)
결혼의 의미	182(67%)
이성교재의 방법	182(67%)
사정	179(66%)
동정	171(63%)
배우자 선택	165(61%)
동성연애	152(56%)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생식생리'(t=-3.972, p<.001)에 관한 점수가 높았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t=-3.607, p<.001) 특히 '성생리'를 제외한 '성병'(t=-2.99, p<.01), '피임'(t=-2.32, p<.05), '생식생리'(t=-3.66, p<.001)에 대한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하여 '성생리'(t=3.31, p<.001), '성병'(t=3.49, p<.001), '피임'(t=2.82, p<.01), '생식생리'(t=8.29, p<.001)에 대한 모든 성지식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출신의 학생들이 대도시나 농어촌 출신의 학생들에 비하여 성지식이 높았으며 '성병'(F=3.72, P<.05), '생식생리'(F=3.15, P<.05)에 대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학의 어머니를 둔 학생이 다른 군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F=2.42, p<.05), 특히 '성병'에 대한 지식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66, p<.05).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자택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성병'(F=6.61, p<.01), '피임'(F=4.82, p<.01), '생식생리'(F=5.94, p<.01)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V. 논 의

성지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식생리'에 대한 성지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월경을 시작하면서 임신이나 분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지식을 어머니로부터 얻는 기회가 있음에 연유한 결과로 사료된다.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성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남명희(1999)와 오윤정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남학생의 성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이인숙(1994)의 연구결과나 강현숙(1997) 그리고 박충선과 한유정(199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지식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성생리로서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남명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생식생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이인숙(1994)의 연구결과나 성병에 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이영휘 등(199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식과 관련된 매우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이성의 심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피임에 관한 점수는 이인숙(1994)과 남명희(1999)의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장 낮은 지식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성의 성심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예기치 않은 임신, 미혼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성심리와 더불어 피임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미혼모, 낙태, 버려지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피임에 관한 지식이야말로 단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확하고도 실질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성이란 남녀 사이의 성교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임신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 채 '성교' 그 자체만을 금기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회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2000년 2월 13일 TV 보도)에 의하면 중학생의 2%가 이미 성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극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성교의 기회는 성장과정을 통해 점점 많아지며 이는 임신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혼전성교, 임신, 미혼모, 낙태,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상스럽고 추하게 생각해 왔던 성에 대한 개념은 필수적인 성지식 습득의 기회를 차단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제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지식과 단지 흥미위주의 음담패설을 구분할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

특성	구분	성 생리			성 병			피 임			생식 생리			진 체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 별	남	3.09(1.30)	-2.15	0.830	3.29(1.61)	-3.62	0.717	0.79(0.68)	-9.79	0.328	7.69(3.09)	-3.972	.000	14.44(4.95)	-1.858	0.064
	여	3.12(1.30)			3.36(1.47)			0.88(0.66)			9.46(3.27)			15.76(5.17)		
학 년	1학년	2.99(1.39)	-1.354	0.177	3.03(1.42)	-2.992	0.003	.75(0.54)	-2.316	0.021	8.17(2.90)	-3.657	0.000	14.14(4.72)	-3.607	0.000
	2학년	3.21(1.22)			3.58(1.53)			0.93(0.73)			9.63(3.47)			16.37(5.25)		
학 과	보건계열	3.36(1.23)	3.312	0.001	3.64(1.49)	3.486	0.001	0.96(0.68)	2.815	0.005	10.43(2.45)	8.286	0.000	17.15(4.74)	6.261	0.000
	비보건계열	2.84(1.32)			3.01(1.46)			0.73(0.62)			7.41(3.42)			13.48(4.89)		
중 교	기독교	3.17(1.20)	0.375	0.771	3.45(1.60)	0.241	0.868	0.93(0.62)	1.062	0.366	9.27(3.96)	1.369	0.253	16.01(4.92)	1.292	0.278
	천주교	2.93(1.33)			3.23(1.31)			0.72(0.70)			8.14(3.12)			14.14(5.04)		
출신고교 소재지	불교	3.18(1.45)			3.35(1.64)			0.80(0.67)			8.82(2.81)			15.23(5.23)		
	종교없음	3.12(1.30)			3.30(1.46)			0.87(0.67)			9.24(2.96)			15.56(5.30)		
부모 생존여부	대도시	3.12(1.32)	0.634	0.531	3.29(1.39)	3.717	.026	3.29(1.39)	1.011	0.365	8.50(3.18)	3.153	0.044	14.87(5.13)	2.522	0.082
	중, 소도시	3.19(1.24)			3.59(1.58)			3.59(1.58)			9.58(2.77)			16.24(5.01)		
양친 생존 여부, 편모, 편모, 양친 안계심	농, 어촌	2.94(1.36)			2.92(1.48)			2.92(1.48)			8.77(4.34)			14.75(5.28)		
	양친 생존	3.12(1.29)	.260	0.795	3.35(1.50)	0.372	0.710	0.84(0.67)	-8.56	0.399	9.08(3.25)	1.284	0.200	15.44(5.10)	0.254	0.799
아버지 학력	편모, 편모, 양친 안계심	3.05(1.40)			3.23(1.57)			0.95(0.58)			8.14(3.93)			15.15(5.68)		
	무학, 초등학교	2.72(1.41)	2.537	0.081	3.83(1.28)	2.278	0.105	0.93(0.80)	0.231	0.794	9.66(2.68)	0.722	0.487	15.96(4.62)	0.628	0.534
어머니 학력	중학교, 고등학교	3.09(1.34)			3.22(1.55)			0.84(0.65)			8.87(3.49)			15.16(5.44)		
	대학교 이상	3.35(1.08)			3.45(1.44)			0.84(0.64)			9.07(3.07)			15.86(4.54)		
경제 상태	무학, 초등학교	3.07(1.32)	0.626	0.536	3.71(1.35)	4.204	0.016	1.05(0.69)	3.558	0.030	9.76(3.01)	1.981	0.140	16.82(4.91)	2.987	0.052
	중학교, 고등학교	3.09(1.29)			3.17(1.55)			0.81(0.65)			8.82(3.35)			14.96(5.18)		
주거 형태	대학교 이상	3.41(1.26)			3.84(1.21)			0.73(0.63)			8.59(3.58)			15.71(4.96)		
	상	3.40(1.26)	1.073	0.344	3.70(1.49)	0.576	0.563	0.90(0.74)	0.328	0.720	7.90(3.28)	0.643	0.526	15.84(5.87)	0.153	0.858
친척집	중	3.13(1.27)			3.31(1.50)			0.86(0.65)			9.02(3.32)			15.45(5.08)		
	하	2.74(1.59)			3.58(1.57)			0.74(0.73)			9.32(3.30)			14.85(5.75)		
자취, 하숙	주택	3.09(1.30)	1.846	0.160	3.18(1.47)	6.614	0.002	0.79(0.65)	4.822	0.009	8.67(3.33)	5.936	0.003	14.83(5.03)	8.110	0.000
	친척집	3.35(1.30)			4.02(1.57)			1.11(0.64)			10.48(2.75)			18.10(4.88)		
친척집	친척집	2.55(0.93)			3.73(1.19)			1.00(0.77)			9.36(3.53)			15.70(5.10)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이 갖춰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대상자 중 79.0%(214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인숙(1994)의 87%, 이영휘 등(1997)의 98%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기존 성교육 방식에 대한 회의감에서 성교육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대학에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9%였으나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실제로 이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4.9%로 나타나 필요성과 참여 의사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까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교육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시기라고 응답한 학생이 42.1%,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학생이 36.2%였다. 이는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 86.7%가 초등학교 이전에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기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교육 방식에 있어 남녀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89.7%가 찬성하였다. 이는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 78.8%가 남녀혼합 방식의 성교육을 희망하였던 것에 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남녀혼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의 성개방 풍조와 더불어 성이라는 것이 남녀 모두의 공통된 주제라고 인식된 만큼 남녀를 분리하여 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신세대 사고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86.7%(235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고자 원하였으며 이는 성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이나 단순한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성교육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역의 성지식을 제공받고자 한 취지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

가장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으로서는 남녀 모두 '남녀의 성심리'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 '피임', '임신'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남녀의 성심리'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학생이 이성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않은 성적 노출로 인하여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강 형태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서 성교육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녀의 성심리', '피임'에 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인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남녀의 성심리'와 '피임'에 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결혼적령기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성을 금기시하거나 감추려 하기보다는 좀더 '안전한 성', '책임감 있는 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성적 비행이나 성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겠다(양순옥 등, 1998).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던 것은 전공 교과목을 통하여 관련 성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자택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 부모님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성관련 지식을 습득하거나 성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일부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한 생식생리나 성생리 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분야, 다학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성의 법적인 측면, 성과 관련된 역기능적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인간의 성심리, 신체적·심리적 측면의 성적 건강 모두를 망라한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1개 전문대학

의 남녀 대학생 271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성지식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7.47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15.42점이었다. 성지식 가운데 '성생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피임'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낮았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생식생리'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2) 대상자들의 성교육 요구

대상자 중 79.0%(214명)가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78.6%(55명), 여학생의 79.1%(159명)가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교육 실시방법으로 55.7%(151명)가 특강, 29.2%(79명)가 정규 교과목의 형태로 운영되기를 원하였으며 89.7%(243명)가 남녀혼합 방식의 성교육을 희망하였다. 대상자의 86.7%(235명)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고자 하였고 성교육의 내용으로 93%의 학생들이 '성심리'를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피임', '임신', '성욕의 처리 방법', '성병'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기로서 42.1%(114명)가 유치원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

2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하여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어머니를 둔 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오히려 높았으며 특히 '성병'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자택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강현숙, 이미혜, 박유경, 전은경 (1997).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경희간호연구지*, 20 : 1-17.

교육부 (1983). 성교육 지도 자료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용-.

권이중 (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김귀희 (1986). 일부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옥 (1984). 고등학생의 성지식에 관한 실태조사. *적십자 간호*.

김성주 (1996). 초등학교 성교육의 실제. *교육월보* 8 : 51-55.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간호학 논집*, 9.

김연희 (1992).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 40-55.

김연희, 정문숙 (1993).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 40-55.

김용자 (1993).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홍 (1996). 인공 유산과 여성 건강, 인공 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 *대한 가족 계획 협회*, 19-30.

김한경 (1983). 학교외의 가정생활 및 성교육.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격형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 239-251.

문인옥 (1997). 일부대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 95-110.

박숙자 (1996). 인공 유산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전략, 인공 유산과 여성 건강 세미나. *대한가족계획 협회*, 39-42.

박애신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 99-108.

성영자 (1984).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

- 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경희 (1993).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어린이의 성의식 지도. 한국교육, 27 : 173-208.
- 손호은 (1991). 국내 성교육용 영상교재에 관한 연구 :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해경 (1996) 학교 성교육의 실태분석 및 새로운 제안, 가족과 성상담소(편). 서울: 가족과 성상담소
- 양미선 (1985). 여고생들의 자아개념, 신체상 및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윤정, 김정남, 하숙영 (1998).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 467-481.
- 윤가현 (1990). 성의 심리학, 성원사.
- 윤귀임 (1982). 남녀 고교생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YMCA, 청소년 상담실.
- 이병암 (1991).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성교육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 26-35.
- 이인숙 (1994).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1994). 십대의 성을 찾아서. 김수기, 서동진, 엄력(편). 95-113,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 : 현실문화연구.
- 이홍균, 유태환 (1996). 인공 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인공 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 대한가족계획협회, 3-16.
- 정동철 (1989). 성교육의 새로운 방향. 수도교육, 114 : 7-21.
- 정아영 (1991).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관심도에 관한 조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조정숙 (1981).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희 (1990). 중학교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 119-134.
- 최영애 (1994). 친족성폭력의 실태. 정신건강연구, 13 : 1-20.
- 최외선 (1998). 건전 청소년 역할을 위한 지역사회역할, 청소년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세미나. 대한가족계획협회, 37-51.
- 최희정 (1985).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경험,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목포간호전문대학 논문집
- 한겨래 (1996).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정규과목 신설은 배제. 7월 17일.
- 한경희 (1991). 중등학생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유정 (1997).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riggs, L. A. (1995). Post primary school teachers' view point on reproductive health & contraceptive practice among schoolgirl sin, Port Harcourt, Nigeria,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Helath, 114(5) : 235-239.
- Ian, S. & John, K. (1992).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in Northern Irelan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1(3) : 295-312.
- Klanger, B., Tyden, T., Rusuvara, L. (1994).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Uppsala. Swede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6) : 468-474.
- Lester, B. & Cox, J. (1988). Involving nurses in public school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58(3) : 108-109.
- Mims, F. H., Brown, L.,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 187-191.

Patricia, C. D., Sharon, M. K. Mary, A.G.
(1992). Gender-specific changes in
students'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at
a Southeastern University between 1973
and 1988, JACH, 41(11) : 99-104.

Robert, F. V. M. & Kathryn, A. W. (1991).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nonymous
questions about human sexuality. JACH,

39(5) : 263-268.

Sonenstein, F. L., Pittman, K. J. (1984). The
availability of sex education in large city
school distric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6(1) : 19-25.

ABSTRACT

Knowledge in Sex and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Sook, Lee · Mi Yang, Jeon · Young Hee, Kim · Mi Sook, Jung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xual knowledge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1 students attending K community college in Chungcheongbuk-do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3, 1999,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exual knowledge in this study include 4 areas such as sexual physiology, contraceptive methods, venereal disease, and reproductive physiolog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the knowledge in sex was 15.42 out of 29, which is very low. Of the four areas of the knowledge, the students showed the lowest score in contraceptive methods. Woman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reproductive physiology than man students.
2. Seventy nine percent of the students felt the need for sex education being given by their college. Most students wanted to obtain sex education through special lectures(55.7%) or regular curriculum(29.2%). Those specialists in sex education were most preferred. with regard to the contents of sex education, sexual psychology was most frequently indicated followed by contraceptive methods, pregnancy, satisfy ways of sexual drive. About forty two percent of the students thought preschool age as the adequate stage for beginning sex education.
3. Sexual knowled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grade, major, and dwelling state.